

Dubai유, 33.53달러 14년만에 최고

석유공사, 미국 휘발유 가격도 이상 급등 ... 중동지역 정정불안 심화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이 14년 신고가를 또한번 갱신하며 33.53달러까지 치솟았다.

중동지역 정정 불안과 미국 휘발유 시장에 대한 수급 우려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 하루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30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69달러 오른 배럴당 33.53달러를 기록해 33달러 선을 회복했다.

4월30일 Dubai유의 가격은 1990년 10월16일 34.13달러 이후 14년만에 최고가를 나타냈던 4월28일 33.18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Dubai유의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32.48달러로 높아졌으며 20일 이동평균치(31.77달러)는 32달러 수준에 한발 다가섰다.

북해산 Brent유도 0.83달러 급등한 35.07달러로 유가 바스켓 도입당시인 2000년 9월8일 36.16달러 이래 처음으로 35달러 선을 상향 돌파했다.

반면,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37.36달러로 0.04달러 하락했다.

선물시장에서는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6월물 가격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가격은 0.07달러, 0.10달러 각각 오른 37.38달러, 34.48달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미국 시장에서 휘발유 선물가격이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꺾런당 1.24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인근지역에서의 정정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5/03>